

여성문화정책뉴스 5월 2차

1	가족친화 인증기업·기관, 가족친화지수 지속 상승 - 2021년 「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」 결과 발표 - ■ 여성가족부는 18일(수) 3년마다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「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(2021년)」 결과를 발표 ■ 조사 결과에 따르면 '21년 가족친화지수는 46.9점으로 '18년보다 6.3점 상승 ■ 부문별 지수는 공공부문(55.7점)이 민간부문(41.1점) 보다 14.6점 높고,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(59.0점)이 인증기업기관(40.6점)보다 18.4점 높음 ■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인증기업이 2021년 4,918개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	[출처]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(http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08562) 2022.05.22.
2	「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」 결과 ■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5월 23일(월)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,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「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■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로 정부지원 수혜비율(54.4%) 10년 새 20%p 넘게 확대 ■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▲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(44.4%) ▲미이행자 처벌 강화(31.5%) ▲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(23.6%) 요구 높아 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강화 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	[출처]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(http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08567) 2022.05.23.